

공명계 共鳴界 Resonance

36.0190° N, 129.3435° E

4.30 - 6.10

2022

space 298

공명계 共鳴界 Resonance
36.0190° N, 129.3435° E

코로나 19의 상실과 성찰 속에서 새로운 인간 (포스트 휴머니티)을 내다보며, 스페이스 298은 '지구 감각 작용으로서의 기후와 몸-신경학적 정동'에 주목해 봅니다. 인간중심주의적 발전주의 역사관에 입각한 도시화, 영토화 과정에서 누락된, 혹은 포착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실재하는 세계의 움직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공명계〉에서 감각의 시-공간으로서의 세계를 지각합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현대 철학자인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umi)는 “가상계(the virtual)”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상계는 잠재 계입니다. 상호 작용하는 잠재계는 발전론적, 목적론적 세계관으로서가 아니라 생성적, 발생적, 과정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변용해가는 세계(worlding)의 다층 변환적 작용을 정동(affect)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적 세계의 애매하고 복합적인 느낌과 새로이 형성되는 감정과 판단들은 여러 감각,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공감각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념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비의식적 감각으로부터 발현될 것입니다. 감각-자극에는 구체적인 발생 기제들과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입니다.

스페이스 298에서는 감각 발생의 매질성, 매개성, 복합성, 발생성과 같은 양상과 특질에 우선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스페이스 298에서는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인지하거나 판단하기는 힘든 혹은 손쉽게 간과된 감각의 세계, 즉 (마수미의 용어를 빌어) 가상계적, 잠재세계 작용인 정동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고민해봅니다. 정동 작용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예술의 근본적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는 ‘공명계’ 프로젝트는 가상계의 정동 작용을 우선 ‘소리’라는 작용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이후 공명계는 촉지적으로 보다 확산적으로 미세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nature 자연

물, 바람, 파도, 흙, 지하수, 나무, 지구

tone 톤

리듬 음질 음색
차이적 관점에서의 소리

music 음악

조화로움과 불일치 사이
인간이 기술로서 조형하는 소리 형식

voice 목소리

인간의 소리적 활동
생명 태동 소리
인공적으로 상징화된, 권력화된, 체계화된 소리

noise 노이즈

가청적이며 비가청적 영역
잠재계

공명계 04.30-06.10

박종연 04.30-05.08

팡 프렌즈 05.13-05.18
김도혁, 김명진, 김진경, 윤관, 윤승빈, 허유진

이진희 05.20-05.26

최수정 05.27-06.02

허용호 · 안성용 06.03-06.09

공명계 共鳴界 Resonance
36.0190° N, 129.3435° E

4월 30일 토요일, 5월 5일 목요일 15:00

박종연 「동글 일렁 텅글 꽃꽃 찰랑」

the nature
reciprocal relation
the tone
rhythmical varieties
the music
harmonic consonance
the voice
artificial sound
the noise
latent sound

5월 13일 금요일 15:00~17:00

김명진 「입암의 바다」, 윤관 「달빛의 일렁임」

5월 16일 월요일 15:00~17:00

김도혁 「다색의 선율」

5월 18일 수요일 15:00~18:00

팍 프렌즈 「the tone」

5월 20일 금요일 15:00~17:00

이진희 「반짝반짝 보글보글 호호~」

5월 27일 금요일 15:00~17:00

최수정 「스타크래프트」

6월 3일 금요일 15:00~17:00

허용호 · 안성용 「선택적 듣기와 다각적 보기」

6월 10일 15:00~18:00

스페이스 298 「공명계」

프로필사진 촬영 - 안성용

space 298
054 289 7913
p.space298@gmail.com
Instagram ID: p.space298
포항시 북구 중앙로 298번길 13

박종연

동글 일렁 뒹글 꽃꽃 찰랑

박종연은 자연과 인공화된 인간 사회성, 그리고 그들이 형성하는 상호 관계성으로 세계를 바라 본다. 이번 워크숍에서 박종연은 자연 현상 중 물의 철썩임, 찰랑임을 보여주고 들려준다.

자연-인공의 상호적 관계성에 대한 유비로서 기대어 있는 돌과 석고를 배치하고, 공간에 자연의 현상을 연상시키는 단어-소리를 내고, 드로잉을 곳곳에 그려 나간다. 또한 자연물 모양의 악기(알루미늄 솔방울 악기)를 연주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자연적인 형태, 인공적인 형태, 안정적인 형태, 가변적인 상태(지속적으로 변화하는)에서 형성되는 온갖 형태를 통해서 세계에 대해 관찰하다 보면, 개별 존재(개체)들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그것이 변형되는 과정에서의 역동적 에너지를 관찰할 수 있다.



팡 프렌즈

the tone

윤승빈, 김진경 - 설치, 퍼포먼스
김도혁 - 녹음, 작곡, 워크숍, 공연
김명진, 윤관 - 작곡, 워크숍, 공연
허유진 - 작곡, 버스킹, 공연

‘팡 프렌즈’ 팀은 ‘바다’와 ‘소리’ 특질을 각 6개의 키워드로 설정하여 제각기 다른 ‘소리-감각적, 바다-감성적 공명계(the tone)’를 구축한다.

바다를 통해 인간 세계적, (인간) 서정적, 자연 감각적 요소들을 연상하고 그것을 제각각 소리적 표현으로 비유하거나 창작하여 공명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은 소리의 음질과 음색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성, 다양, 다색적 ‘톤 tone’을 형성한다.

윤승빈 「삼각의 발견」

루바토 “재랑거트 빠르거나 느리게”

사람들은 각 구역마다 놓여 있던 초를 공연자 앞으로 모아온다. 초의 불씨가 켜지고 꺼짐에 따라 공연이 진행된다.

윤승빈은 ‘테이퍼 캔들’(촛대에 사용할 수 있는 얇고 긴 초)을 오브제로 사용한다. ‘공명계’에서 윤승빈은 초가 녹아들어 가는 습성, 즉 온도와 습도, 바람의 세기, 공간의 형태(매질) 등에 따라, 그리고 아침-점심-저녁-밤-새벽 시간대마다 다르게 타들어가는 초의 습성에 착안하여

‘파도’의 시시각각 변하는 특질을 ‘루바토’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팡 프렌즈는 전시장 곳곳에 자신이 작곡하고 부르는 소리-음악을 들을 수 있게 설치할 예정인데, 윤승빈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각각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안내하고, 주목할 수 있게 인도한다. 팀원의 소리 표현 자리에서 각기 다른 선율을 암시라도 하듯 타들어가고 녹아 쌓인 촛농을 보면서 관람객은 제각각의 선율과 톤이 공명하는 흔적을 보게 된다.

파도는 바람을 따라 밀려오고 철썩이는 소리와 함께 변화한다.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와 함께 뿔뿔이 흩어지고, 모난 돌들은 파도의 이끌림에 따라 구르고 굴러 모래가 되어 바람에 날아간다.

돌에 부딪쳐 철썩이는 파도의 소리가, 돌이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달한 건 아니었을까? 파도에 휩쓸려 심해를 탐험하는 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소리를 따라 관람자의 길을 안내하는 반딧불이의 역할이 되고자 한다.

김진경 「바다의 조각」

에스프로시보 “표정을 담아서”

전시장 입구 바다를 연상케 하는 아크릴 칩이 모여 있으며 관람자는 1개든 10개든 원하는 만큼 집어 전시장 곳곳에 흩뿌린다.

칩들은 바닥에 부딪쳐 소리를 내며 흩어진다. 5월 18일 마지막 날에는 엔딩 퍼포먼스로 참여자들 모두와 더불어 흩어졌던 칩들을 관람자와 함께 한곳으로 모으고 그물에 엮어 완성한다.

김진경은 바다의 요소 중 폐기물에 착안하여, 실 그물과 아크릴 거울 조각을 작업 오브제로 사용한다. 바다는 좀처럼 바깥에 꺼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 지구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모여 있는 총체일 것이다.

그것은 버려진 소리들일까 아니면 잠재되어 새로운 생성을 준비하는 소리들일까. 김진경은 그 누구에게도 비밀이었던 오직 바다만이 들어 왔던, 혹은 모두가 합창하듯 공통으로 토로했던,

그리하여 바다라는 공통 세계에 모여 있는 모든 소리들이 어떻게 반짝이는 잠재적 실체들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듯하다. 바다로 흘러든, 모여 있는 이 생각들과 이슈들이 마치 파도에 쓸리면서 세계를 역동적으로 아우르듯, 김진경은 실 그물로 그 각 조각(아크릴 조각)들을 끌어본다. 관객 또한 바다에 쏟아 내거나 펼쳐낸 인간, 자연, 세계의 생각들, 고민들, 상념들, 문제들을 '공명계'에서 함께 쓸어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과 고민이 머리를 짓눌러 육신거리는
두통이 오면 나는 어김없이 밤바다를 찾아간다.
차갑게 식은 모래에 발을 묻으면 깊은 곳
남은 온기가 내게 위로를 주고,
까맣게 일렁이는 바다는
파도 소리와 함께 나의 고민을 쓸어간다.
바다는 서랍장. 파도는 일기.
파도는 나의 소리를 듣고
바다로 유유히 걸어간다.

바다는 우리의 소리로 이루어진
큰 서랍장이다.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는 바다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것이고
파도는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감정의 외침을 들고 바다로 돌아간다.
서랍장을 정리할 시간이 왔다.
바닷속 소리를 건져낸다.

김도혁 「다색의 선율」

리베라멘테 “자유롭게”

관람객은 제시된 반주곡을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흥얼거리면서 작사를 할 수 있다. 김도혁은 먼저
리드미컬한 반주곡 2곡, 멜로디컬한 반주곡 2곡을
들려주며 관객에게 몇몇 키워드나 관련한 이야기
들을 예시로 제시한다.

5월 13일부터 계속 관람객의 소리를 녹취하며,
작사를 수집한다. 5월 16일과 18일에는 녹취한
소리와 수집한 가사를 갖고 워크숍을 실행한다.

바다는 사실상 전체이다. 광활함이라는 것은
바다를 형언하는 말이다. 그것은 구분할 수 없는
연속과 지속을 형언하는 말일 것이다.

김도혁은 이러한 바다의 특성, 즉 광활하고 끝이
없기에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한다.

김도혁이 제시하는 키워드와 네 곡의 반주곡은
관객으로 하여금 제각각 자유롭게 흥얼거리며
작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

작품 속에 의문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반주와 가사는 있는데 왜 멜로디가 없을까.

이 곡들은 제가 생각하는 멜로디이며, 제 감정을 담은 가사입니다.

이 곡들을 만듬에 있어, 특정한 가사 구성 방식은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가사를 읽고 계신 당신에겐 마지막 한 줄이 전개가 될 수 있고, 첫 줄이 당신 이야기의 발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가사를 읽은 후에는 본인을 돌이켜보거나, 본인만의 멜로디를 만들거나, 본인이 직접 만들어본 가사를 직접 불러보며,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스스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남의 시선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긴장을 풀고서 솔직한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며, 많이 듣고, 자신만의 소리를 뱉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부르는 노랫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고 더욱 가치 있습니다.

김명진 「입암의 바다」

콘서트멘토 “감정 있게”

34도 : 찾는 이 없어 쓸쓸한 바다

36도 : 평상시와 똑같이 변화 없는 파도

38도 : 열대야에 아지랑이 피는 바다.

창문에 파도가 부딪칠 정도로 바다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동네 ‘입암’은 김명진의 고향이다. 그곳엔 김명진이라는 한 개인의 태어남과 죽음, 자람과 성숙함의 과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그뿐 아니라 ‘입암’은 성인이 되기까지의 무서움, 기다림, 즐거움, 고통스러움, 쓰라림, 견뎌냄 등 모든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다.

‘공명계’에서 김명진은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들을 사람의 체온에 빗대어 “34도, 36도, 38도”로 지정하여 표현한다. 각각의 인격체를 체온이라는 숫자로, 혹은 통계적 수치로 표현했을 땐 거의 균질적으로 보이지만, 개체에 따라 그 체온이 함의하는 바, 혹은 그 체온에 따라 인체와 심지어 인격에 끼치는 영향 관계는 매우 다르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것을 파도와 바다에 빗대어 표현했고, 3종류의 리드미컬한 곳을 작곡했다.

‘입암의 바다’가 김명진 자체이듯 누구나 자신-됨을 형성하고 자신-됨이 변용되어 가는 자연-환경적, 몸-정동적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다양 다변하는 개체성을 생각해 보면서 ‘공명계’에서 김명진은 관람객과 더불어 “콘센티멘토”적 조우를 한다.

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태어났다.

유난히 파도가 빛났던 동네 바다는 유일하게 있던 꼬마인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었고, 때로는 외로움과 고민을 들어주던 큰 형이 되어 주기도 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품어주었던 바다는 나에게 있어 아버지이기도 하다.

바다를 떠올려 보면 그 속에서 유난히 빛을 내는 그리움이라는 세 글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퍼지듯 그 글자들은 내 마음속에서 너울지며 온몸을 적신다.

소리는 바다와 감정의 모습과 비슷하다.

부서지는 파도를 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사라지지만 감각은 손끝에 남아 있다.

소리 역시 형체는 없지만 감정, 생각, 기억으로 남아 있다.

보이는 것은 소리를 만들고 부른 그 사람만이 보일 뿐, 거울 속 비친 나를 보며 소리를 그려 본다.

윤관 「달빛의 일렁임」
소그나도 “꿈꾸듯 몽환적으로”

65bpm : 파도에 몸을 누이고 싶은 잔잔한 일렁
임의 바다, 생각에 잠김
90bpm : 바람이 선선히 부는 산책하기 좋은
바다, 미디엄 템포
120bpm : 경쾌한 발걸음과 일상 뒤 휴식을
취하려 찾은 바다, 밴드 사운드

달빛이 바다 물결(파도)에 비추어 일렁인다.
잔잔함과 요동침과 같은 파도의 움직임은 달을
빛으로 춤추게 한다.

윤관은 포항 영일대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작곡을
했다. '파도'라는 것은 시간, 온도, 날씨에 따라
다른 물결을 만들고 요동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무쌍함에 대해 윤관은 음악의 속도
(bpm) 구분에 빗대어 3 종류의 연주곡을 작곡
한다. 파도의 요동침을 근간으로 작곡한 곡들은,
지속적으로 소리가 작우로 움직이도록(패닝)
믹싱 된 멜로디컬한 연주곡들이다.

달빛 내린 바다의 일렁임은
여러 가지의 길로 보일 때가 있다
그리운 이를 떠올리는 길
절어왔던 나를 돌아보는 길
아득히 먼 마지막을 떠올리는 길

나의 고민을 달빛 사라지기 전에
모든 것을 품은 일렁임에
피워 보낸다.

윤관 작곡
2021년 12월 10일

허유진 「일상의 빛깔」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AM 1:00 : 잠들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내일을 위해 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시간
PM 12:00 : 부서지는 햇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
PM 6:00 : 하루의 일을 끝마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퇴근길.
지친 얼굴빛 속에서 삶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

허유진은 각기 다른 일상의 감정과 느낌을 하루
라는 시간에 빗대어 세 종류의 곡을 작곡한다.
새벽(한밤중), 정오, 저녁이라는 시간대의 표정
들을 해와 바다, 그리고 일상의 칸타빌레로 표
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각 시간별로 빛과
바다, 그리고 일상의 표정을 곡으로 만든다.
특히 이번 워크숍과 공연에서는 기타 연주와
허밍을 중심으로 세 곡의 멜로디컬(보컬 위주)한
음악을 연주한다. 시간대별 곡의 표정과 빛깔은
다음처럼 묘사된다. 워크숍에서 허유진은 직접
그린 일상에 관한 드로잉들을 넘겨보면서 관객
들과 더불어 일상의 표정을 리듬과 멜로디로
표현한다.

파도에 잘게 부서지는 빛,
하얀 거품이 몰고 오는 시원한 바다 내음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모래
지친 일상 속 위로가 되는 바다
언제나 나의 바다는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했다.
바다에 비치는 다채로운 색처럼
그곳에는 다채로운 색의 행복한 일상이 남아있다.

이진희

반짝반짝 보글보글 호오~

이진희는 ‘차갑다’고 느끼는 ‘와이어(철사)’를 재료로, ‘따뜻함’이라는 느낌을 전하고자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이진희는 “따뜻하고 따스한 소리”라는 주제로 일상에서의 “따뜻함”이라는 촉각적 감각과 “반짝임(빛남)”이라는 시각적 감각을 연결시킨다.

사람들이 느끼는 혹은 생각하는 따뜻한 소리는 어떤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워크숍을 시작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따뜻한 소리를 알아보기 위해 따뜻한 소리 ASMR을 찾아본다.

- 각자 생각하는 따뜻한 소리는 무엇인지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각자가 생각하는 소리를 ASMR로 들어보고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알아본다.

-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따뜻함’을 찾아서 자신만의 느낌을 연출해 본다. 차갑다고 느껴지는 재료를 선택해서 자신만의 따뜻함으로 채우는 작업을 해본다.

asmr

https://youtu.be/N_g3AiXF-q8

- 장작 타는 소리

<https://youtu.be/KKi2qiuZZWQ>

- 청 보리밭 바람 소리

https://youtu.be/lbSeg_HBbKY

- 도마 소리

‘따뜻하다’의 단어는 온도와 날씨, 음식 등이 따뜻할 때 표현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친절한 것을 ‘따뜻하다’고 하기도 한다. 영어로도 ‘warmth’는 마음과 태도의 따뜻함을 뜻한다. 이 ‘따뜻함’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 감정적인 단어로 ‘소리’라는 청각적인 단어를 붙이니 겨울의 언 땅과 눈을 녹이듯 켓가를 간지럽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따스함이란....

작품에 따뜻한 빛을 더하기도 하고,
자연을 표현하면서 따스함을 찾고자 했다.
난 왜 그토록 작품 속에서 따스함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까?

인간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결핍에서 욕망이 시작된다고 한다. 가령 돈이 부족해서 원하던 걸 못했던 기억이 있다면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해진다든지, 성장 과정에서 애정이 부족했다면 사랑에 대한 욕망이 강한 부분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난 따뜻함이 부족했나?

아님 여전히 부족한가?

나는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버텨 두지 않고 무던히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왔다.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흔한 변명을 늘어 놓으며 난 누구보다도 특별한 삶을 욕망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득 찬 것은 보이지 않고 늘 부족한 것만 보였다.

내 삶에서 따뜻함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특히, 사람의 정, 사람들의 마음을 원했었다. 가족과 지인들 더 나아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컸다. 과거형

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은 그 욕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작품 속에 따뜻함을 계속 더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단순히 내 작업의 소재인 와이어(철사)가 차갑고 날카로운 선이라는 이유를 들먹거리며 따스함을 찾고자 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작품 속에 생명을 불어 넣고자 욕망했다. 그리고 난 여전히 물적으로는 차갑기만한 나의 작품에 따스함과 생명이 들어갔다고, 내가 그렇게 이루었다고 떠들어댔다. 거창한 철학적인 관점을 주입하기라도 한 듯 자신감에 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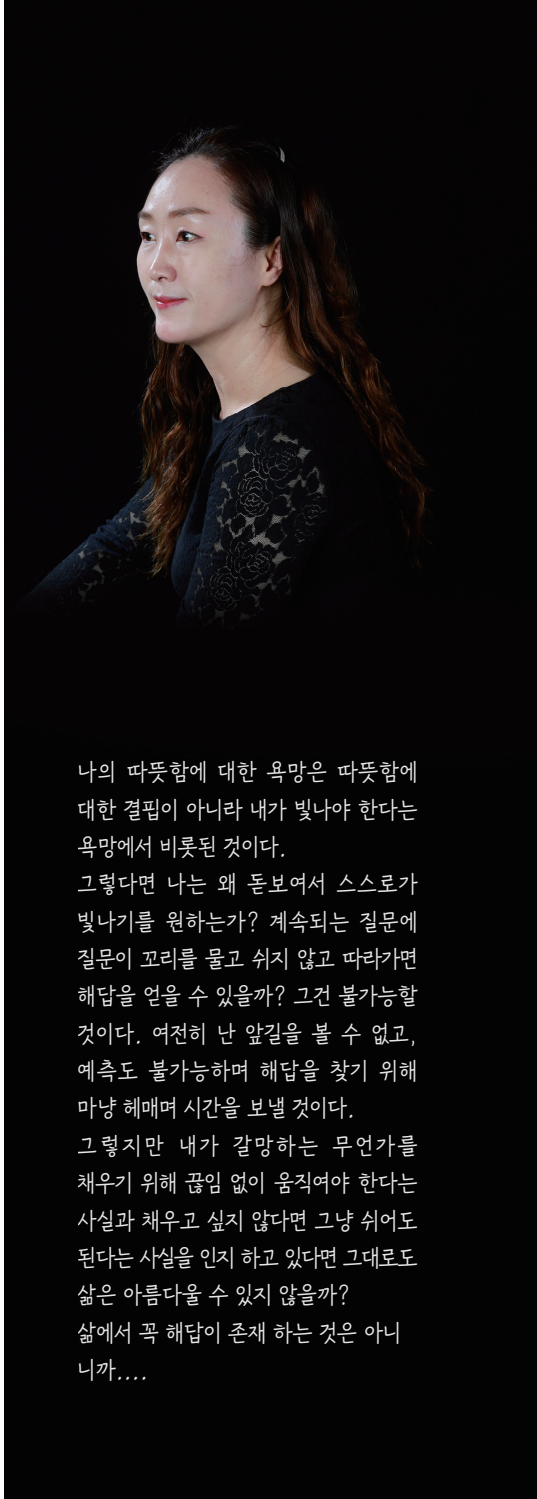
문득 나의 작품에서 "이러한 저러한 요소들을 모두 빼고, 또 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갑자기 너무 막막해졌다. 그래서 나는 미궁에 빠진다. 다시 한번 작업에 투입된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나의 실체를 찾아봐야겠다.

그럼, 나의 따뜻함의 결핍은 언제부터이며 얼마나 채워야 가득한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난 혼자보다 누구라도 같이, 함께 하는 걸 좋아한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서까지 함께 하는 걸 좋아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나는 군중 속에 돋보이는 자신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타적으로 살고 있다고 큰소리 평평 치고 있지만, 들여다보니 너무도 이기적이라는 사실이다.

헉! 이 사실을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깨닫다니....



나의 따뜻함에 대한 욕망은 따뜻함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내가 빛나야 한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돋보여서 스스로가 빛나기를 원하는가? 계속되는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고 쉬지 않고 따라가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여전히 난 앞길을 볼 수 없고, 예측도 불가능하며 해답을 찾기 위해 마냥 헤매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갈망하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끊임 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과 채우고 싶지 않다면 그냥 쉬어도 된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다면 그대로도 삶은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삶에서 꼭 해답이 존재 하는 것은 아니니까....



최수정

스타크래프트

최수정은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 중, 특히 전쟁의 소리에 집중한다. 인간중심주의가 극한으로 치달은 형태로서의 전쟁, 파국에 치달을 수 있는 무한 경쟁적 경제 활동을 ‘폭력’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폭력이라는 연주는 매우 활발하다.

전쟁이 자행될 때마다 주식 시장은 요동치고, 전략들은 난무한다. 폭력이라는 인간중심 주의적 극성화와 더불어 최수정은 생명을 배치한다.

과연 그 원천을 모른 채 소리를 시각화 시켰을 때 스펙터클한 모양의 소리들은 어떤 감정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소리 듣기

소리 보기

소리 그리기

소리 시각화에 따른 구분

1. 죽음의 소리

- a. 실제 전쟁터의 소리(대포 소리, 미사일 소리, 건물 파괴 소리, 비명 소리)
- b. 경제 전쟁터(주식 시장 변동표)

2. 생명의 소리(태아의 심장 박동)

세기(강약), 높이(고저), 맵시를 소리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소리의 세기는 소리의 진폭에 따라 결정된다.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이고 진폭이 작을수록 낮은 소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본다.

먼저 하나의 방법은 소리를 파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주로 그래프 선을 이용한다.

또 다른 방법은 예술적 표현 방식이다. 주로 소리에 따라 느껴지는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관람객들에게 먼저 소리를 그래프 선들로 보여주고, 그 진폭에 따른 정보(그 소리 진원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은 후에 각자 그 진폭에 따라 어떤 느낌들이 생겨나는지를 드로잉이나 기타 표현으로 드러내는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한다.

죽음의 소리(전쟁의 소리), 생명의 소리

태아는 모체(母體)에서 400일 동안 소리를 통해 세상과 교감한다.

태어나서 처음 눈보다 귀가 먼저 열리며, 죽을 때 마지막으로 닫히는 기관이 귀라고 한다.

소리가 발생시키는 감정과 그것을 시각화시켰을때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소리 없이 보는 공포 영화는 무서울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만 들린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소리를 그림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림으로 나타난 소리를 찾다가 소리의 크기와 높낮이가 선으로 그려진 '파장'을 발견했다.
파장의 움직임이 큰 소리 중에서 강렬하고 깊은 내면을 움직이는 소리 원천을 찾았다.

그중 최적의 소리는 전쟁의 소리였다.
그런데 그 소리는 세상이 파괴되는 소리이며 삶이 죽어가는 소리이다.

총소리, 대포 소리, 미사일 소리, 폭발하는 소리 그리고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전쟁의 소리처럼 죽음과 관련된 소리들을 파장이라는 움직이는 모양으로 그리고, 그 움직이는 파동과 진폭 그래프의 모양으로 나타난 소리들을 본다.

과연 시각적 기호로 나타난 소리로부터 죽음과 전쟁의 공포를 느낄 수 있을까?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선들이 주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다.

심장 박동처럼 생명과 관련된 소리는 전쟁의 소리와는 어떻게 다를까?

그밖에 아직 보지 못한 소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이 작업에서 소리를 보고, 그리고, 그려진 소리를 다시 보고 싶다.
그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생겨나는지, 어떤 감정으로 귀결되는지 알아보고 싶다

텔레비전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방송된다.
전쟁은 텔레비전 속 뉴스라는 스펙터클일 뿐 마음속 고통은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허용호 · 안성용

선택적 듣기와 다각적 보기

노이즈(noise)는 가시성과 비가시성, 가청계와 비가청계, 제도화된 것과 본능적인 것, 관습화된 것과 무의식적인 것, 규율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 사이에서의 매개 영역이자 잠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허용호는 이번 워크숍에서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에 대한 선택에 있어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자연 공생적, 환경 생태적 차원에서의 교란, 그리고 정치 경제적 갈등, 미시적 일상에서의 부딪침과 고통처럼 실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의 실마리는 사실 풀기 쉽지 않다.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감에 있어 필요한 것은 정동적 사랑이라고 허용호는 제안한다.



1. 섞인 소리 중 ‘선택’

2. 환경과 동물에 관련된 사진과 영상 배치

3. 다각적 보기

* 혼합되어 통합된 소리를 선택해 듣기,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각적 보기 실험

4. 선택 후 현상에 대한 다각적 측면을 본 후 달라진 생각들

5. 듣기와 보기에 있어 ‘선택’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봄

선택적 듣기와 다각적 보기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소리가 섞여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특정 소리만 인식한다. 그 과정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소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병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층간 소음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인식되어져 스트레스가 된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접할 때 개인적 경험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정의한다. 같은 현상일지라도 모두가 다르게 인식한다는 말이다. 이 또한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존재와 다양한 경험이 혼재하기 때문에 현저히 다른 견해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단편적이거나 왜곡되게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자신만의 틀을 형성하는 구실이 된다.

층간 소음의 스트레스로 돌아가 보자. 위층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에 잠을 설친다. 결국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향한다. 에어컨 기사가 오고 실외기를 수리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원인은 실외기보다,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려지고 만다.

TV 소리를 크게 듣다. 그동안은 실외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선택적 소리 듣기) 실외기 소리에 적응해 보기로 한다.

실외기는 커졌다 꺼졌다 반복한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실외기 소리의 거슬림을 알고 부터 고요한 상태를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다각적 보기-관점의 변화를 포함한 의미) 베란다의 창을 방음창으로 바꿀 계획을 세운다.(다각적 보기-관점의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여기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실외기 탓(일방적 시각)만 계속했다면 위층과의 불화가 커졌을 것이고, 스트레스도 늘어났을 것이다.

다각적 보기의 쉬운 예를 들어보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자. 러시아의 관점, 우크라이나의 관점, 전 지구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다각적 보기)에서 살펴봤을 때, 편협한 사고를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적 소리 듣기와 다각적 보기를 하는 이유는 이해를 넓히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다시 층간 소음으로 돌아가 보자. 시도 때도 없이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위층에 사는 아줌마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양해를 구한다.

우리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어서 뛰어다니고, 소파에서 뛰어 내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렇다며 미안함을 표현한다. 아래층의 노부부는 심한 소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받아 들인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날 때 마다 자폐를 가진 아이를 떠올린다.

현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을 바꿔 버린 것이다. 배려는 함축된 의미로 사랑이다.



인류에게 있어서 사랑은 문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과학의 발전 속도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문명은 결국 멸망하고 만다.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과학의 발전 속도를 사랑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랑하면 핵무기와 전쟁이 있을 리 없고, 자연을 사랑하면 환경을 오염시킬 일이 없을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질병이 만연하고 있는 지금, 인류는 위기에 봉착했는지 모른다.

SAT

4/30

15:00

박종연

동글 일렁 텅글
꽃꽃 찰랑

THU

5/5

15:00

박종연

동글 일렁 텅글
꽃꽃 찰랑

FRI

13

15:00~17:00

김명진

임암의 바다

윤관

달빛의 일렁임

MON

16

15:00~17:00

김도혁

다색의 선물

WED

18

15:00~17:00

황 프렌즈

the tone

20

15:00~17:00

이진희

반짝반짝

보글보글 호오~

27

15:00~17:00

최수정

스타크래프트

6/3

15:00~17:00

허용호

선택적 듣기와

다각적 보기

10

15:00~17:00

스페이스 289

공명계